

도서관을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Utilization of Libraries as Evacuation Facilities

노 영 희(Younghee Noh)*

노 지 윤(Ji-Yoon Ro)**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	V. 논의
III. 연구내용 및 방법	VI. 결론 및 제언

요 약: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도서관의 공식 및 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임시 또는 상시 등 공간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 및 재해 관련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도서관의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사회적 대피처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에 개별 도서관과 사서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도서관, 대피시설, 대응 서비스, 활용 방안, 전국단위, 사서 인식, 인식 조사

ABSTRACT: In the thi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the formal and informal social safety space function of the library is used as a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libraries were designated as evacuation facilities and related service status, and librarians' awarenes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isaster and disaster response services.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propose a direction to activate disaster and disaster response servic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who are the service providers. Second, discussions on spatial aspects, such as temporary or permanent, are needed. Third, development of disaster and disaster-related service models is required. Fourth, the administration's support and management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ibrary's function as a social safety space. Fifth, when developing guidelines for the role of libraries as social shelters and related services, specific details to address the concerns of individual libraries and librarians need to be specified.

KEYWORDS: Library, Librarian, Perception, Utilization Plan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rs4u@kku.ac.kr / ISNI 0000 0004 7936 570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rojyiv@gmail.com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0년 5월 18일 • 최초심사: 2020년 5월 28일 • 게재확정: 2020년 6월 2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55-77,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55]

I. 서론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과 대피시설이라는 두 개념의 연관성을 쉽게 떠올릴 수 없지만, 최근 도서관은 지역 내 공동체로서 사회적 안전공간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분야 트렌드 중 하나로 ‘재난 및 복원력 (Resilience)’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재해 및 재난 시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복원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에서도 폭풍과 정전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 더 많은 도서관들이 폭풍 대피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Kimmelman 2013). 국내 역시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2019~2023)에서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 공간 확대’라는 정책과제 아래 도서관의 공식·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안전공간은 각종 재난(지진, 폭염, 한파 등) 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가이드라인¹⁾ 마련 및 사서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서관은 생활·사회 간접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식정보, 문화생활,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가치는 지식정보와 평생학습의 장이자, 문화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또 다른 도서관의 가치는 도서관의 사회 서비스 실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오스틴 공공도서관(Austin Public library)과 같이 일부 해외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 내 대피시설 안내, 투표·여권·출생증명서 등의 공문서 발행 기관 관련 정보, 의료 또는 건강관리 관련 정보, 무료 법률 서비스 관련 정보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대피시설로서의 역할과 이와 관련한 대응 서비스 제공 역시 도서관의 사회 서비스 실현이란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국외 공공도서관의 경우 오래전부터 재난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로서 적극 활용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공공시설이자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영희, 노지윤 2019). 국내에서도 지역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의 공간과 이와 관련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대피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 도서관 사례 분석 연구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주체인 도서관의 운영자 사서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의 적극성과 활성화

1) 사회적 안전공간 가이드라인의 목적: 각종 재난 발생 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도서관 내부 자원의 역할 및 협력 사항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공간으로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노영희, 노지윤 2019).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와 관련한 본격적인 도입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공공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대피시설과 관련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과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

그동안 도서관에서 재난·재해, 안전 등의 키워드는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다루어졌다. 예컨대 화재 등과 같이 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발생원인, 복구방안, 계획, 예방 대책, 비상 시 행동수칙, 시설 및 장비, 인적 요소, 안전교육 등으로 조사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개선점 등을 제안하였다(김포옥, 2006; 고주연, 2007). 또한, 특정 기관에서 도서관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수습·관리·대응 요령에서부터 도서관 시설 안전 점검표 등을 안내하고 있다(도서관연구소 2014, 문체화체육관광부 2014). 한편,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전통적인 재난대비를 비롯한 위기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정수 등(2016)은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국외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는 제3차 종합발전계획의 공식 및 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도서관을 지역 사회의 핵심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서 인식하며, 자연재해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에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복구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노영희, 노지윤, 2019).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다. 도서관 건물 내지 공간을 비상 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비상 시 장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 전기 이용, 화장실 제공, 인터넷 접속, 구호요원들을 위한 회의 장소, 안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도서관마다 관련 이용 정책 및 규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 등을 대비하여 도서관의 구조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종 대응 서비스 제공한다. 자연재해의 2차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정전, 화재, 부상 등을 대비한 시설과 도구, 양식 및 구호물품 등을 갖추고 지역 안정화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재해 시 대응 계획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모색한다. 도서관이 효과적인 대피시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 재해 계획(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넷째, 지역사회 안정 및 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으로, 도서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지역사회의 복원력 및 안정으로의 복귀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실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도서관 신축 시 대피소 기능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도서관이 설계될 때 폭풍 대피소가 포함되어 신축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관의 재난재해 발생 시 역할을 기반으로 향후 대피시설 지정·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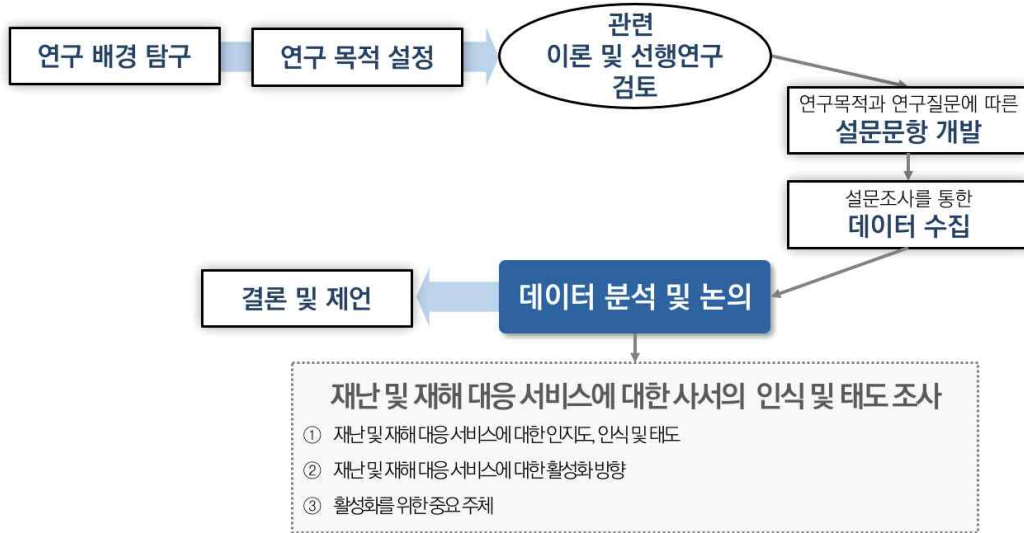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도서관의 대피시설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재난 및 재해 대응서비스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현재 도서관에서는 재난 및 재해 상황 시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RQ 2. 사서들은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 RQ 3. 사서들이 생각하는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도서관이 대피시설 내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운영자와 사서들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절차와 연구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 체계도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첫째, 연구의 배경을 탐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 목적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4개 영역,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107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가 가능한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현재 대피시설로 지정된 도서관들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민방위대피시설 표준데이터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대피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5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락한 공공도서관 111개, 대피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 46개의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3월 3일부터 2020년 3월 31일인 약 1달간 수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로는 KSDC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을 수락한 157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103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5.6%에 해당한다.

4. 설문 문항 구성

설문 항목의 전체적인 구성은 앞서 설정된 3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재난 및 재해 대응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4개 부분으로, <표 1>과 같이 총 4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 성	구성내용	문 항
일반사항	1. 성별	4
	2. 연령대	
	3. 근무 경력	
	4. 재직 기관의 소재지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6. 대피시설 지정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3
	7. 대피시설 지정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중복 체크)	
	8. 대피시설로서의 역할 자체 평가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9.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4
	10.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3
	11.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인식*	8
재난 및 재해 대응서비스 활성화 방안	12.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	11
	13.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그 기능과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개선사항	10
	14.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구축 시 구축 수준*	1
계		44

*해당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답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도서관의 대응·역할·관련 서비스가 주목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 사회적 피난처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뿐 이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재난 및 재해 관련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사서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택한 답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주관식(서술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현황, 인식,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객관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 현황 파트를 제외한 인식과 활성화 파트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식 파트에서는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에서, 활성화 파트에서는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 수준'관련 문항에 서술형 문항이 제시되었다.

5. 데이터 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dow Version 25.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를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사서의 인식과 사서들이 생각하는 재난 및 재해 대응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 대응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 경력, 기관의 소재지로 구성되어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응답자들을 성별로 분류할 경우, 여성 79명(76.69%), 남성 24명(23.30%)의 비율로 응답을 하였으며, 연령 분류의 경우는 30대 59명(57.28%), 20대 19명(18.44%), 40대 18명(17.47%), 50대 7명(6.7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의 경우 5년 미만 46명(44.66%), 5년 이상 ~ 10년 미만(3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소재지의 경우, 서울·경기권 52명(50.48%), 경상권 27명(26.21%), 전라권 14명(13.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N	%
성별	남성	24	23.30
	여성	79	76.69
연령	20대	19	18.44
	30대	59	57.28
	40대	18	17.47
	50대	7	6.79
근무 경력	~ 5년 미만	46	44.66
	5년 이상 ~ 10년 미만	32	31.06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53
	15년 이상 ~ 20년 미만	4	3.88
	20년 이상	5	4.85

기관의 소재지	서울·경기권	52	50.48
	강원권	7	6.79
	충청권	3	2.91
	경상권	27	26.21
	전라권	14	13.59
계		103	100

2.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 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설문 대상 도서관들의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와 지정 도서관들의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피시설 지정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서들은 ‘예’ 또는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변으로 53명(51.45%)이, 모른다는 응답을 50명(48.54%)로 사서들의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 여부

특 성	구 분	N	%	M	SD
대피시설 지정 여부	예	18	17.47	2.31	.754
	아니오	35	33.98		
	모른다	50	48.54		
계		103	100		

대피시설 지정여부에서 ‘예’라는 응답을 한 사서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도서관의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및 역할과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와 같다.

18명 중 10명(55.6%)의 사서들은 해당 도서관이 대피시설 지정 여부를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응답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상황 발생 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다(12.5%), 최소한의 안전한 시설/공간을 임시(또는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12.5%), 최소한의 구호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10%),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사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10%) 등의 순으로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지정 여부를 건물 내 안내문구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홍보의 소극성은 실제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

〈표 4〉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현황 (중복체크)

구 분		N	%
대피시설로 서의 기능 및 역할	지정되었으나,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5	12.5
	지정되었으나,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5	12.5
	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상황 발생 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다.	5	12.5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역할·이용규정·시설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정책/방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지정 여부를 건물 내 안내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0	0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사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4	10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있다.	1	2.5
	최소한의 안전한 시설/공간을 임시(또는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5	12.5
	최소한의 구호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4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지 모기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받고 있다.	3	7.5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관련 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6	15
계	40	100	

되는 지역주민이 관련 서비스 활용도와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보아 현재 도서관에서는 대피와 관련된 기능과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응답자의 48.54%가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도 별도의 기능과 역할 수행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수의 도서관들은 재해 대응 계획 마련, 위급상황 발생 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과 구호 물품 확보 뿐 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본부 내지 모기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받거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또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과 적극성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피난처로서 도서관의 대응 속도와 역할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재 재난 및 대응 서비스를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계획에서 언급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현재 대피시설로 지정 및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2.94의 응답률이었으며 현 서비스가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대피시설로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도

특 성	구 분	N	%	M	SD
대피시설로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도	그렇지 않다	4	22.2	2.94	.639
	보통이다	11	61.1		
	그렇다	3	16.7		
계		18	100		

3.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조사

1)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인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는 〈표 6〉과 같이 조사되었다. 인지도와 관련 3개의 문항에 대하여 모두 알지 못한다는 문항이 각각 58명(56.3%), 71명(68.93%), 79명(76.69%)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재해 및 재난 대응과 도서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평균 2.79의 응답률을 보이며 비교적 중립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표 6〉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나는 국내외에 많은 도서관들이 대피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 (9.7)	48 (46.6)	19 (18.44)	25 (24.27)	1 (0.97)	2.60	.994
나는 국내외에 많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로서 활용될 뿐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11.65)	59 (57.28)	20 (19.41)	11 (10.67)	1 (0.97)	2.32	.854
나는 국내에 5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8 (17.47)	61 (59.22)	16 (15.53)	7 (6.79)	1 (0.97)	2.15	.821
나는 재해 및 재난 대응과 도서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9 (8.73)	32 (31.06)	35 (33.98)	26 (25.24)	1 (0.97)	2.79	.956
계	103 (100%)						

2)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표 7〉과 같다.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지정 및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52명(50.47%)이, 지정여부와 별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63명(61.15%)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표 7〉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지정 및 활용될 필요가 있다.	9 (8.73)	13 (12.62)	29 (28.15)	49 (47.57)	3 (2.9)	3.23	1.012
지정여부와 별개로 위급 상황 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은 대피시설로서의 장소 제공과 관련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4.85)	10 (9.70)	25 (24.27)	56 (54.36)	7 (6.79)	3.49	.938
계	103 (100%)						

이처럼 사서들이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서들은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각종 재해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으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대피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모든 비상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문사서들이 지원을 받아 사전에 이러한 대피시설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비스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공감과 우려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표 8〉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관련 의견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친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어느 기관보다 익숙한 공간 • 지역주민과 밀착한 친근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안정감 지원 • 도서관은 보통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다중시설이므로 가능하다 생각함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공공기관이지만 지식정보의 보존과 관리의 의무가 있다. 긴급재난상황에서 대피시설로 지정 활용된다면 자료보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 • 도서 및 각종 기기 분실 우려
공공성/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함 •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기관이라서 • 공공이용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 공익을 위해 • 공공시설이므로 • 재난 대응서비스 또한 공공서비스임 • 지역사회기관으로써 위급상황 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라고 생각함 • 공공기관으로써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 공공기관의 시설물로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장소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공을 위한 서비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시설)의 하나로서 만약의 대피 상황이 발생 시 주민들을 보호 해 줄 의무가 있어 보임 • 공공도서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시설로서의 안전성에 관한 의문 •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은 지금도 많은 하중을 받고 있어, 각종 지진이나 재난 시 대피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도서관의 주된 공간을 차지하는 자료실 내에는 서가 등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음 •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건물이 대피시설로써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도서관 내에 있는 많은 장서와 서가를 생각할 때 지진 등 자연재해에 오히려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오래된 도서관의 경우 건물 내구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도서관의 공간이 대피시설로써 적합한지 의문임 •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자료실을 2층 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기 때문임 • 재해 및 재난 대응에 관해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함 • 공공의 시설이니 지역주민에게 필요하다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건물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지역사회기관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 도서관은 이용자들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위급상황시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함 •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중 한부분이라고 생각함 • 도서관은 주민 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라서 •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홍보의 편의 • 도서관이 대피시설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도서관 이용자들의 재난발생시 최소한의 대피시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p>는 3층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피시설로 지정하게 된다면, 건물붕괴 시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시 대피시설(방공호)을 지하로 만들 경우, 관내 장서수와 서가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지진 등 서가 무너짐, 화재 등 따라서 도서관내 대피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도서관 건물이 매우 부실함 • 도서관 규모에 따라 대피시설로 활용해야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면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선택의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대피시설 증가에는 긍정적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없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사회정보망이 망실되었을 때 관련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도서관이 위급 상황 시 지역주민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편의시설, 정보습득 장소 등 재해 극복을 위한 공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로 인력 배치가 되지 않는 한 도서관 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음 • 도서관 인력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대응 부족 우려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당 서비스의 도입을 생각하는 사서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과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서들은 도서관의 공간, 인력, 예산 등의 여건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축적인 측면에서 건물 내구력이나 도서관 내 서가 등으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자 입장에서 자료보존의 문제 발생 가능성과 각종 기기에 대한 분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사서들 마다 상반되는 의견은 인프라, 접근성, 공간, 전문성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사서들의 인식과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그 외 중립적인 의견은 보조·차선적 측면, 기능적 측면, 책임소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조·차선적 측면에서 도서관은 자료제공 및 보존, 문화 향유 등에 주목적이 있으며, 공공적 성격에서 대피시설로의 역할을 고유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의 도서관들은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긴급 상황 시 대피시설로써 사용 가능하게끔 건설이 되었지만 최근의 도서관들은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지정되기 보다는 재해 및 전쟁 발발 이후 차선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는 다른 대피시설이 붕괴되었거나 한 경우 공공장소로써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표 9〉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관련 의견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피 시 필요한 시설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 공공시설이므로 또한 협조 장소가 넓다고 생각함 • 도서관의 여건상 위급한 상황에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재난 대피시설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넓은 강당, 화장실 수, 인력 등 부족하거나 없음 • 재난 대피 시설로 활용할 만한 수용 공간과 편의시설이 없음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에 주민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피장소로 적합 •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찾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여짐 • 일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했을시 사람이 우선이므로 가까운 도서관이 대피장소로 제공이 되어야 할거 같은 생각이 듦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에 더 적합한 시설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근거리에서 대피시설이 여러 개로 지정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가와 열람실에 충분한 공간 활용 • 접근용이, 공간이 넓음 • 대피 시설로 활용될 만 한 규모 및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 • 공공시설이며, 넓은 공간확보가 가능하다고 봄 • 많은 사람을 수용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에 대피시설로써 적합함 • 도서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공간 협소 •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 부족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화재 및 재난 시 대처해야 할 행동들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부족

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진이라면 대피시설로 적절할지 모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미사일 등 침공 등)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건축 및 시설 측면에서 대피시설로서 괜찮은 도서관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나 시설적으로 열악한 도서관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로 보통으로 체크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책임소재 측면에서 국가 운영 도서관인 경우는 대피시설로 가능하지만 재단소속 등 민간운영 도서관은 책임소재와 컨트롤 타워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우려 지시 이것에 대한 메뉴얼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지정여부와 별개로 위급 상황 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은 대피시설로서의 장소 제공과 관련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M= 3.49), 대피시설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반대 또는 우려하는 사서들의 목소리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모든 도서관에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보다 첫째, 건축·시설적으로 열악한 도서관을 제외해야 하며, 대피시설로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건축·시설적 기준과 함께 공간의 넓이, 건축 연도 등과 같은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대피

시설로서 지정될 수 있는 도서관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안정성, 편의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입장에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와 보상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사서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국내외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한 사서와 이용자 인식 개선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도서관이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도서관의 재해 및 재난 대응서비스 기능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위급상황 시 지역주민의 일시적 안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4 3.88	6 5.82	29 28.15	62 60.19	2 1.94	3.50	.803
위급상황 시 재해 극복을 위한 공간으로 도움이 된다. (예) 전기, 편의시설, 구호 물품 등	4 3.88	11 10.67	24 23.30	59 57.28	5 4.85	3.49	.895
위급상황 시 최소한의 정보 습득 장소로 도움이 된다. (예)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재해 상황, 복구 정보 제공 등	3 2.91	5 4.85	26 25.24	59 57.28	10 9.70	3.66	.835
위급상황 시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3.88	6 5.82	33 32.03	51 49.51	9 8.73	3.53	.884
도서관과 사서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4 3.88	6 5.82	35 33.98	52 50.48	6 5.82	3.49	.850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4 3.88	3 2.91	29 28.15	59 57.28	8 7.76	3.62	.830
재난 시 지역사회 안전 및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4 3.88	5 4.85	26 25.24	61 59.22	7 6.79	3.60	.844
도서관과 사서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10 9.70	22 21.35	35 33.98	29 28.15	7 6.79	3.01	1.080
계	103 (100%)						

사서들은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M=3.66),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M=3.62)과 지역사회 안전 및 통합에 기여(M=3.60)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도서관과 사서의 업무영역 확대와는 비교적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

다음으로 사서들이 생각하는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의 방해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이 조사되었다.

특히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부족(M=4.07), 관련 부처나 정부 차원에서 법 또는 제도의 미흡(M=3.84),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관심 부족 및 관리 미실시(M=3.8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제3차 종합발전계획의 취지에 발맞추어 자연재해 발행 시 도서관의 사회적 피난처 역할이 조명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발 시에는 반드시 국가·지역·모기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11>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도서관 자체가 대피시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추지 못함	3 2.91	9 8.73	24 23.30	57 55.33	10 9.70	3.60	.889
도서관 및 사서의 인식 부족	7 6.79	12 11.65	29 28.15	49 47.57	6 5.82	3.34	.996
도서관 차원에서 재해 대응 계획을 미수립	6 5.82	15 14.56	32 31.06	40 38.83	10 9.70	3.32	1.031
도서관 차원에서 관련 기능·역할·이용규정·시설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정책/방침/규정을 미수립	5 4.85	11 10.67	33 32.03	45 43.68	9 8.73	3.41	.964
최소한의 시설/공간/구호 물품의 미확보	3 2.91	7 6.79	27 26.21	45 43.68	21 20.38	3.72	.964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사서 교육 및 훈련 미실시	2 1.94	11 10.67	29 28.15	43 41.74	18 17.47	3.62	.961
관련 부처나 정부 차원에서 법 또는 제도의 미흡	1 0.97	2 1.94	27 26.21	55 53.39	18 17.47	3.84	.764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관심 부족 및 관리 미실시	1 0.97	2 1.94	29 28.15	51 49.51	20 19.41	3.84	.789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부족	1 0.97	2 1.94	20 19.41	46 44.66	34 33.00	4.07	.83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홍보 부족	1 0.97	6 5.82	25 24.27	50 48.54	21 20.38	3.82	.860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미구축	2 1.94	8 7.76	31 30.09	45 43.68	17 16.50	3.65	.915
계	103 (100%)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점으로 사서들은 도서관 내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설/공간/구호 물품을 확보(M=3.98)와 지역 내 소방시설, 경찰서, 대피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M=3.98)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외부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M=3.91)는 의견등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대피시설 기능 및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개선되어야할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도서관과 사서의 인식 및 의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7 6.79	9 8.73	39 37.86	41 39.80	7 6.79	3.31	.970
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상황 발생 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7 6.79	4 3.88	25 24.27	55 53.39	12 11.65	3.59	.985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역할·이용규정·시설안 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정책/방침/규정을 마련한다.	5 4.85	2 1.94	26 25.24	49 47.57	21 20.38	3.77	.962
최소한의 시설/공간/구호 물품을 확보한다.	3 2.91	2 1.94	18 17.47	51 49.51	29 28.15	3.98	.896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3.88	7 6.79	28 27.18	43 41.74	21 20.38	3.68	1.002
관련 부처 및 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서관을 필수 대피시설에 포함 또는 대피시설 기능 설치를 권고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법 또는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6.79	4 3.88	31 30.09	41 39.80	20 19.41	3.61	1.059
재난안전관리본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관심과 정기적인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	6 5.82	3 2.91	24 23.30	51 49.51	19 18.44	3.72	.994
재난안전관리본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5 4.85	0 0.00	22 21.35	48 46.60	28 27.18	3.91	.96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 2.91	5 4.85	27 26.21	49 47.57	19 18.44	3.74	.918
지역 내 소방시설, 경찰서, 대피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4 3.88	1 0.97	15 14.56	56 54.36	27 26.21	3.98	.896
계	103 (100%)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 수준에 대한 표본 집단의 응답 결과는 〈표 13〉와 같다. 가중치 분석에 있어 '재난 및 재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급 상황을 위한 임시 공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서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대피 시설 기능을 고려하고 관련 공간 및 물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축 도서관의 경우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건축 설계와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구호 물품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도서관의 경우 재난 및 재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급 상황을 위한 임시 공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13〉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 수준

구 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계	순위
도서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하고 관련 공간 및 물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35.92	15 14.56	89	2
도서관의 지하 등 별도 공간 상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10.68	21 20.39	43	4
재난 및 재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급 상황을 위한 임시 공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33.98	39 37.86	109	1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제공한다.	13 12.62	25 24.27	51	3
재난 및 재해 시, 별도의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7 6.80	3 2.91	17	5
계	103 (100%)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서들의 세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4〉 참조). 공간의 상시 제공에 동의하는 사서들은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위급상황에서 긴급하게 공간, 시설, 구호물품 등을 바로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취지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네바다 공공도서관(Nevada Public Library)의 경우에는 도서관 지하실이 별도의 화장실이나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준수하고 있지 않더라도 폭풍과 같은 재난 내지 위급상황 발생 시에 해당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반면에 공간의 임시적 제공에 동의하는 사서는 공간 부족, 수용능력 등 도서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 수립 시에 위급 상황 시의 공간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건설된 공공도서관의 경우 재난 및 재해 관련 계획 수립에 만족하며, 사회적 대피처로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후 대피소 공간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축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설계, 시공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14〉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 수준에 대한 사서 의견

공간의 상시 제공 + 서비스 중심	공간의 임시적 제공 + 서비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하고 합목적적인 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임 다중에게 유용한 장소로 제공되자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음 사서업무와 대피업무는 별개이므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 상시적인 확보를 통해 운영과 관리가 되어야 함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위급상황에서 긴급하게 공간, 시설, 구호용품 등을 바로 이용 가능할 것임 소규모 안전 대피시설 공간이 미리 확보되지 않는 이상, 도서관에서의 여유 공간을 급하게 찾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음 현재 시설에서 최대한의 대피시설 활용 가능성 확보가 현실성 있다고 생각함 일단 공간 조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피할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고,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공공도서관의 공간 부족은 현실, 별도 공간확보는 도서관 운영상 어렵다고 봄 기존 도서관 공간의 주민 수용능력 부족, 많은 사람을 위한 대피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임시적 제공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기존 공간 활용 강당 및 자료실 등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면 되 때문에 별도의 공간 확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함 별도의 상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서비스 공간도 부족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 도서관 여건 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공간을 상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 공간 제공이 최선임 상시 공간 확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열악한 지자체 도서관의 시설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상시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 전담직원 배치 및 행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대피시설로 구축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난 발생 시 도서관을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됨
신축 도서관 중심	서비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도서관 공간은 만성적 공간 부족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여력과 시설이 없음 추후 대피소 공간 역할을 겸한다면 건축단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부터 시공에 반영 사전 설계부터 동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 건물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대피시설로 꼭 구축해야 한다면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음 기 구축된 도서관의 경우 공간 확보가 어려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대피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어려울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용공간(문화교실) 등을 개조하여 임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현재 도서관 시설을 대피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건물 설계부터 대피공간 및 시설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설계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오래된 건물은 대피시설에 해당할만한 공간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리모델링에 해당 공간 및 물품(구호품 중심)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 재난상황에 대한 가정 필요, 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 기존 도서관은 공간, 시설 확보하기에 예산문제 운영문제가 예상. 신축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피시설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은 대부분 책을 보관하는 보존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모든 도서관에 대피시설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도서관 자료 수용 공간 또한 충분하지 않아 대피시설을 위한 신축이나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도서관마다 공간이 다르겠지만 서고, 자료실, 강의실, 기타 물품으로 공간이 없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책도서 등 폐기 처리 등 노력 중인데 대피 공간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음 도서관은 보존서고 등 별도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공간이 많아 대피시설을 확보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도서관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도서관들이 리모델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도서관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피시설로 활용하기 힘든 시설도 있을 수 있음 현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대응 공간이 있더라도 위급사항을 위하여 공간을 버려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별도의 공간과 서비스 제공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재해 시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도서관 외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V. 논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도서관에서는 재난 및 재해 상황 시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본 연구의 표본 집단 중 18명의 사서만이 자관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도 별도의 기능과 역할 수행 여부를 모르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수의 도서관들은 재해 대응 계획 마련, 위급상황 발생 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과 구호 물품 확보뿐 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본부 내지 모기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받거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또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과 적극성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피난처로서 도서관의 대응 속도와 역할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재난 및 대응 서비스를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역할 확대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피난처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와 관련된 4가지 문항은 평균 2.465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지정 및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52명(50.47%)이, 지정여부와 별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63명(61.15%)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서들은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M=3.66),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M=3.62)과 지역사회 안전 및 통합에 기여(M=3.60)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사서들이 생각하는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향은 무엇일까? 도서관이 대피시설 기능 및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도서관 내부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시설/공간/구호 물품을 확보(M=3.98)와 지역 내 소방시설, 경찰서, 대피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망 구축(M=3.98)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외부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M=3.91)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대피시설 구축의 경우 따라서 신축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건축 설계·공간 확보·물품 구비해야 하며, 기존 도서관의 경우 재난 및 재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급 상황을 위한 임시 공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마련을 위해서 크게 인식, 공간, 서비스, 행정 및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과반 수 이상의 사서들은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약 40% 비율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시서와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거나, 대피시설로의 도서관 활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조사되었다. 한편,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서 각종 재난(지진, 폭염, 한파 등) 도서관이 공식/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피난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서대상 교육 실시할 것으로 추진과제로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서들이 관련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공간이라는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고려 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인식 및 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의 사서들이 공통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반대의 시선과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시 또는 상시 등 공간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서들은 공간이 충분하다고 대답한 반면 일부 사서들은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공간 확보에 있어서 임시, 상시, 계획 상의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등으로 다양한 답변을 주었다. 각 사서들의 극명한 의견 차이는 도서관 마다 공간, 인력 등의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시, 도서관 규모별 적용의 차이를 두거나, 건축연도, 여유 공간의 넓이, 인력 등을 최소 조건 이상의 도서관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간 제약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서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셋째, 재난 및 재해 관련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가이드라인 개발 시,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 사례를 기반으로 재난 및 재해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떤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의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재난 및 재해 서비스는 특히 도서관과 사서 외에도 재난안전관리본부 또는 모기관과 함께 고려해야할 문제이며,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이는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예산 이미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재난 대응을 위한 대피시설로서의 특수한 공간 및 전문인력, 예산 등의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 없이 추가적인 기능까지 맡게 된다면 실제 상황발생시 실효성은 미흡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상위 기관은 교육청 내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인식개선 및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도서관 운영 정책 차원에서 추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도서관 시설면에서 대피시설로

적합한 여건 조성과의 함께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대피처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에 개별 도서관과 사서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서들의 응답에서 “도서관의 건물이 대피시설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이 일부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대피시설로서 전적인 역할 수행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응답이 나타남에 따라 대피처로서의 도서관은 대피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나 시설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이처럼 인식개선에서부터 정책반영까지 다양한 측면에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나 아직 그 정도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 서비스 및 협력체계 개발, 인식 개선 및 사서 교육, 공간 임시 또는 상시화 논의 및 제공 등의 다섯 단계로 제안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최근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제고와 함께 미국도서관협회, 제3차 종합발전계획 등에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 역할 확대와 관련 계획 수립에 앞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도서관의 가치가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가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수많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 속에서 변하지 않는 도서관만의 차별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반대와 찬성은 사서 개인의 입장 차이일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우려에 앞서 관련 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일 수 있다는 열린 시각과 실제 국외에서는 대피시설로써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또는 주요 언론사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 국내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국가 추진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서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제시된 도서관 대피시설 구축 방향은 향후 관련 역할 확대와 가이드라인 개발 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노영희, 노지윤. 2019. 폐교 시설의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폐교 발생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91-116.
- 이정수 외. 201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77-100.
- 고주연. 2007. 『대학도서관의 화재예방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국립중앙도서관. 2014. 『도서관의 재난대비책 수립』.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연구소. 2014. 『공공도서관 표준운영규정 개발 연구』. 서울: 도서관연구소.
- 김포옥. 2006. 한국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85-110.
- Treasury, N. Z. 2017. Living standards framework: Social cohesion. <<http://www.treasury.govt.nz/abouttreasury/higherlivingstandards/hls-ag-socinfr-feb17.pdf>,W> [cited 2019. 8. 29].
- Dowdell, L., and C. L Liew. 2019. "More than a shelter: Public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needs of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1(4): 100984. <https://doi.org/10.1016/j.lisr.2019.100984>
- Kimmelman, M. 2013. Next Time, Libraries Could Be Our Shelters From the Storm. *The New York Times*, October 2. <<https://www.nytimes.com/2013/10/03/arts/design/next-time-libraries-could-be-our-shelters-from-the-storm.html?searchResultPosition=1v>> [cited 2019. 8. 2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Noh, Younghee, and Ji-Yoon Ro. 2019.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s to Reuse Closed Schools as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91-116.
- Lee, Jung-Soo et al. 2016.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2): 77-100.
- Ko, Ju-yeon. 2007.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Librari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Library Preparedness Preparednes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4. *Public Library Standard Operation Regulation Development Research*. Seoul: Library Research Institute.
- Kim, Po-Ok. 200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85-110.

